

이렇게 들었다

여성

“남-녀 분별 악마의 생각이니...”

깨달음에는 남녀가 없다. <유마경>의 관중생품에는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를 통해 남자에게는 남자라는 고정된 자성이 없고, 여자에게는 여자라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설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평등하지만 않다. 1~7월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여성주간이다. '함께만드는 남녀평등-남녀평등은 혼합복식처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양성평등 실현을 새천년의 도약과제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고교도 6월26~27일 '여성복지의 새흐름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여는 등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여성의 역할과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에 대한 경전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느닐 소마 비구니가 성안에서 결식을 마치고 숲으로 향했다. 그때 마왕파승이 "성인의 경지는 높고 이득해 오르기 어렵거든 여자의 몸으로는 능히 그곳에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마 비구니는 마왕의 장난임을 알고 계속으로 답했다. "마음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여자의 몸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누구라도 지혜를 얻게 되면 위없는 법을 얻을 수 있느니라. 만약 남녀라는 분별심을 한꺼번에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곧 악마의 생각이니 너희는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고 일체의 두려움을 버리고 모든 애착이 사라짐을 증득하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열반을 이루리니, 파승아 그대는 나에게 족음을 일라." (소마경)

■ 남자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의 낳은 바니 무슨 다를 것이 있느냐? (보문품경)

■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가 없다고 할 지언정 우바이(재가여성)를 천하다고 말하지

말라. (대방광불보살경)

■ 여래의 처소에서는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김씨, 이씨 등의 성은 없애지고 오직 이것을 사문 석가의 아들이라 한다. 왜냐하면 여래중(如來衆)은 마치 대해(大海)와 같기 때문이다. (중일아함경)

■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 평등하다. (중일아함경)

■ 이 사에(四愛)의 법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앞에서 법구를 외면 그 중에 털끝만한 복이라도 있을진데 태어나는 곳마다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가난한 집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미래의 세상에서도 다시 이같은 부처님을 만나 여자의 몸을 변하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깨끗한 법안을 얻게 하여 주소서. (수미제천경)

■ 상도비구가 헤시녀에게 말했다. "여인은 악하고 교배가 많은 까닭에 제석천이 될 수 없으며, 여인은 음란방자하여 절제가 없는 까닭

에 범천이 될 수 없다. 또 여인은 경안불순하고 정교를 훼손하는 까닭에 마천이 될 수 없고, 여인은 승기는 태도가 84가지여서 청정행이 없는 까닭에 성재(聖財)가 될 수 없다." 헤시녀가 말했다. "원래 남녀의 구별은 없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불설초일명심대경)

■ 대개 네 종류의 아내가 있느니라.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고, 친척같은 아내가 있으며, 도적같은 아내가 있고, 하인같은 아내가 있느니라. 때를 따라 남편을 잘 보살피고 부족함이 없이 받들고 모시고 공양하는 아내를 어머니같은 아내라 한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하는 아내를 친척같은 아내라 하고 말한다. 남편을 보면 미워하고 딴 남자를 생각하며 기뻐만 있으면 남편을 해치려는 아내를 도적같은 아내라 한다. 항상 말을 삼가고 남편을 잘 받들며 모시고, 삼보를 공경하여 청정한 마음을 갖는 아내를 하인같은 아내라 하느니라. 장차 머느리여, 그대는 어떤 아내에 속하느냐? (옥야경)

불상을 크게 조성하고 사찰을 화려하게 짓는 외형적 불사만을 가지고 불교가 발전하지는 않는다. 불교의 발전은 전적으로 '부처님의 정신을 옮기게 계승하고 신도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출가자들의 자질 여하에 달려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동양 최대·세계 최대를 외치면서 외형적 불사를 해 왔지만 번번이 내부갈등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세인들의 비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출가자들의 자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조계종 교육원이 '교육법'을 개정하여 현행 6개월의 행사교육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행사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니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처사로 환영한다. 사실 우리 불교계는 행사교육의 내용이 불비하거나 기간도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출가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추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행자는 장차 비구나 비구니로 발돋움할 사람들이요, 이 땅의 불교를 앞장서서 이끌어 갈 사람들이며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그러자면 교단은 그들이 장차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행사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간소하고 형식적이어서, 출가본사에서 일정기간 허드렛일이나 하다가 종단직 차원에서 실시하는 단기행사교육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서는 출가자로서의 본분의식이

행사교육 더 강화하자



성열 남포교원 원장

가추어질 수 없고 시대적 사명감도 구비할 수 없다. 전에는 자격제한을 두지 않다가 근래 들어 고졸학력을 필수로 한다고 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지도자로서의 역건을 구비하였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물론 수계를 받고 나서 동국대학이나 승가대학에 진학하여 불교학을 공부하고 선방에 가서 참선수행한다지만 그 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나 선방에서의 교육내용은 묻지 않더라도 거기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불교를 정통으로 공부할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으니, 출가자들의 불교교육에 대한 이해나 수행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이고, 교리적 입장에서 대 사회적 시각이 정립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사실 행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연장하여 4년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행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할지 모르겠으나 정예화되지 못한 다수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불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출가자가 세속사회의 내로라 하는 사람들로써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지적 우수성과 청정한 도덕성 때문이다. 지적 우수성은 불교적 시각으로 사회 제반 현상을 해석할 수 있고 도덕성은 세속의 권세에 눈치보지 않고 불교인의 양심으로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행자로 출발하는 이들을 체계화된 교육에 그러한 능력과 덕성을 배양하지 않으면 장차 출가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 속에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착해 나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중앙승가대학의 입학정원 미달사태가 계속되는 것도 심각하게 대책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해의 행사교육에 임하는 이들을 전일 승가대학에 입학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독자의 소리

조계종-선학원 '한뿌리 합' '화합의 불교' 보여준 일

조계종과 선학원이 지난 6월 22일 관계정립을 위해 8개항의 합의문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합의한 8개항은 오랜 갈등을 씻어낼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여진다. 선학원이 정관을 개정해 '일원은 선학원' 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로 바꾸면서 갈등이 표출됐고 신문에 실려 자주 오르내렸다. 한때 양측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계종과 선학원 양측의 입방 불화와 승적발급 거부 등으로 양측이 감정의 대립까지 보이기도 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가 아니었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뿌리에서 태동했음을 상할 때 더욱 그렇다. 내부의 문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시기가 아니다. 불교 내에서 '관용'이 없이 어떻게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뿌릴 것인가.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며, 여기에 불교는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채대술(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산객과 불자들이 찾아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적멸보궁인 봉정암을 산배하고 온 사람들이라면 진한 감동과 투쳐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더욱 사두쳐 다시 가보고 싶어진다. 이런 기도 성지에서 어느때부터인가 참배객들로 부터 일정액의 기도비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사찰의 운영때문이란.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나는 어저귀니 없는 일을 당하였다. 이는 보살 30여명과 함께 봉정암을 참배했다.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예를 올리고 1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한 스님으로부터 이곳에서 잘 수가 없으니 내려가라는 종용을 받았다. 기도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하는 수없이 발걸을 돌려 5시간이 넘는 길을 내려와야 했다. 몇 심년을 여기저기 기도처를 다닌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일이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가르치는 불가에서 기도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쫓겨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서글픈 생각이 든다. 김숙자(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한다면 더 많은 불자들이 알고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찰에서도 신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도증 발급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한다. 신도증을 발급받으면 불자로서 지위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김갑숙(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내것 내것 가리지 않는 봉사활동 격려해주길

내가 다니는 절에는 신도들 2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조직이 있다. 절에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명절이나 연말이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나간다. 또 인근 복지관에도 한달에 한 차례씩 나가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나 우리 절 스님들 중에서는 이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밖으로 봉사다니는 시간 있으면 사찰에 좀 더 신경써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당황이 되고 봉사에 내 절 네 절을 가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다른 절에 다니는 도반들에게서도 종종 듣는다. 절 신도가 다른데 가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스님들도 간혹 있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모두 스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어려운 절살림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격려는 못해달라짐 못마땅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절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야말로 불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탐욕이라고 생각한다. 박우량희(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도증 발급 자세한 정보 교계신문에도 실렸으면

신도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난감해 하는 신도들이 많다. 불교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직장일 등 바쁘게 생활하는 불자들은 방송 듣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불교계 신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도증 발급에 대해서 홍보를

적멸보궁 참배하는데 기도비 안냈다고 쫓겨나

봉정암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정도로 이름난 기도처이다. 봉정암은 산을 거슬러 5시간 가량 올라 가야 할 정도로 험난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매일 많은

목탁 소리

이 경숙 <취재 1부 부장>

조계사가 공금형 및 배임혐의로 전 주지 현근스님등 15명을 6월 24일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조계사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의 재무 장부를 감사한 결과 1백억원이 넘는 금액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97년 현대로부터 받은 대우전북원공사비 및 피해보상금 41억원도 사찰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초 일간지에는 경주 불국사 전 재무 진현스님의 장적기사가 나와 불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경주불교회관을 지으려고 모았던 돈 13억원을 횡령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모 복지관의 관장이 복지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돌출나 사직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대구 동화사에서는 '주지가 불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화회의측이 세속법에 고발했으며, 주지스님측은 부인하고 있다.

정재가 새다나...

이러한 일련의 금전관계 사건이 불교계를 또다시 어지럽게 하니 그저 착잡할 뿐이다. 불자들에게 수칙심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던 지난해 종단분규의 원인을 돌아보면서 이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찰재정의 투명화 운동'이 절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던 것이 새삼스러운데도, 횡령, 착복 등 입에 담기도 싫은 금전비리가 또다시 발생하니 말이다. 사찰재정은 불교종단의 재산이며 나아가서는 전 불교도의 재산이다. 포교와 교육 등 불교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사리사욕으로 개인화해서는 안되는 정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왜 이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까. 아직도 사찰재정이 공개운영되지 못하고 수입 지출의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고 주지의 독단으로 주먹구구식의 집행이 여전하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부터라도 재정의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운용에 전 사찰이 하루속히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해야한다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 또한 신도들도 이에 동참해 사부대중이 함께 삼보정재가 남비·유실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찰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주지나 재무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고 대리인일 뿐이다. 사찰의 주지나 단체의 장 등 공적에 앉았을 때는 더욱 근신을 해야하며 공금을 유리 앞처럼 투명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을 가진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법학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불교미술· 일교사상· 포교방법론	· 무전장스님(본대원학장) · 박 중(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승가대교수) · 권한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중(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일수(문화재단연구원) · 송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2년 교과목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교무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호(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남수영(동국대교수) · 개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표수남(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영할사진 3매	99년 6월 15일~ 99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 일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연각(조계사암)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점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① 상과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②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계 방생기도

찾아오시는길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